主婦들은 石油危機의 深刻性을 깊이 모르고 있다

— 石油問題에 대한 主婦意識調査 —

〈油協·弘報室〉

우리 나라 가정주부들은 石油문제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판단과 지식을 갖고 있으나, 석유위기를 보는 視角은 안이하고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들은 기름값이 앞으로 10년내에 현재 수준보다 3배 정도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석유 자원의 유한성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존기간중에는 고갈될 염려가 없으며, 또앞으로 50년 동안은 계속 석유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또 지난 두 차례의 석유위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어떻게든지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다」는 식의 안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本 協会가 최근 서울 시내 아파트지역의 주부 3백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石油문제에 대한 主婦意識調査」에서 밝혀졌다.

다수의 응답자들은 기름값이 자꾸 오르는데 대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나, 앞으로 기름값이 계속 오르더라도 더 작은 坪数의 아파트로 옮기거나 연탄을 사용하는 단독주택으로 옮기기 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계속 살겠다는 반응을 보여 난방비지출규모의 확대에 따른 고통보다는 아파트생활의 안락성과 쾌적성에 더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지어는 앞으로 기름값이 계속 오르더라도 현재보다 더 큰 坪数의 아파트로 옮기기를 바라는 주부들이 의외로 적지 않았다.

그러나 石油에 관한 知識度는 높아 우리가 내는 석유값은 결국 産油国이나 메이저에게 큰 이득이 돌아간다고 보고 있으며, 기름값이 자꾸 오르는 이유도 産油国이 멋대로 올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는 응답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름값이 자꾸 오르는 것은 정유회사들 때문이며, 또 우리가 내는 석유값이 결국 정유회사에 큰 이득이 돌아간다고 한 응답자도 다소 있어 석유문제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오해도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石油用語의 이해도에 있어서도 매스컴에 등장하는 빈도수가 높은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으나 석유사업법, 油価連動制, 복합단가, 석유사업안정기금등 특수용어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낮았다.

1. 조사항목

(1) 난방비부담의 규모
(2) 자원절약
(3) 석유위기와 그 의식
(4) 석유에 관한 지식

2. 조사대상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주부

3. 조사지역

서울시내 아파트지역(기름난방식)

4. 조사인수

(1) 조사인 총수 : 350명
(2) 유효회수인수 : 335명
(3) 유효회수율 : 96%

5. 표본구성

연 령	조사인수	비 율(%)
20 代	69	21
30 代	134	40
40 代	85	25
50 代	47	14
合 計	335	100

6. 조사방법

個別面接청취법

7. 표본추출법

임의추출법

8. 조사기간

1981년 3월 6일~12일 (7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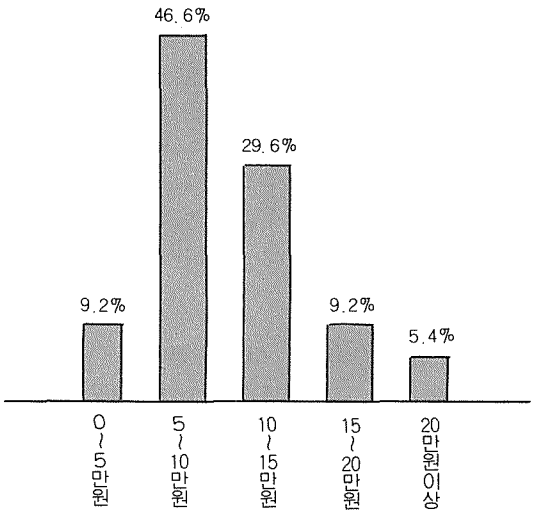
9. 조사기관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난방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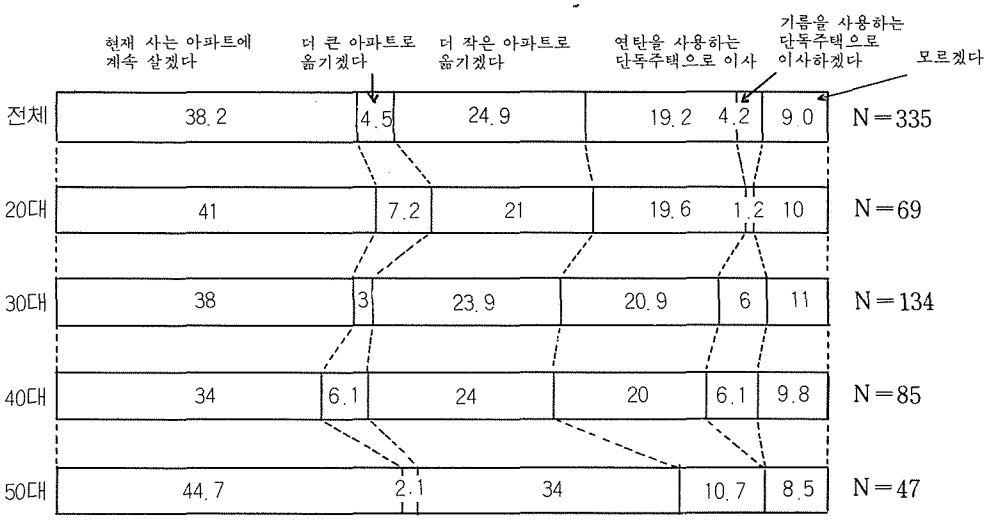
「지난 1월 한달 동안의 난방비는 어느 정도였읍니까」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보면, 「5~10만원」이 46.6%로 가장 높고, 다음에 「10~15만원」이 29.6%로 10만원 내외가 76.2%를 차지하고 있다. 「5만원이하」와 「15~20만원」은 각각 9.2%, 「20만원 이상」은 5.4%의 비율을 나타냈다.

1. 지난 1월 한달동안의 난방비는 어느 정도였읍니까.



「앞으로 석유값이 계속 오를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겠읍니까」의 설문에서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계속 살겠다」는 응답이 24.9%로 가장 높아 도시의 주부들이 기름값의 계속적인 상승과 난방비지출규모의 확대에 따른 고통을 의식하기 보다는 아파트생활의 안락성과 쾌적성에 더 집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심지어는 앞으로 기름값이 계속 오르더라도 현재 보다

2. 앞으로 석유값이 계속 오를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겠읍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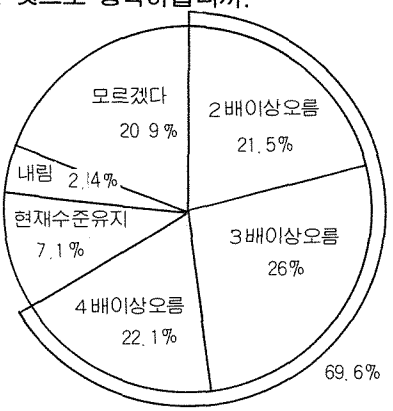
더 큰 坪数의 아파트로 옮기기를 바라는 주부들이 4.5%이며, 「연탄을 사용하는 단독주택으로 이사하겠다」는 19.2%에 머물고 있다.

결국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계속살거나 아파트 坪数의 증감에 관계없이 계속 아파트에 살겠다는 비율이 전체의 69.6%에 이르고 있어 현대 주부들의 아파트 選好경향을 말해 주고 있다. 특히 50대는 80.8%가 계속 아파트에 살겠다고 응답했으며, 기름을 사용하는 단독주택으로 옮기겠다는 사람은 1명도 없어 老後의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는 현대 여성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했다.

石油危機에 대한 意識

「기름값은 앞으로 10년내에 어느 정도까지 이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현재 보다 3배 이상」이 26%, 「4배 이상」이 22.1%로

3. 기름값은 앞으로 10년내에 어느 정도까지이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비교적 정확한 판단하에서 강한 위기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또 현재 수준보다 2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비교적 온건한 전망을 보인 응답자는 21.5%로 나타났다.

「석유는 언제쯤 고갈될 것으로 생각 하십니까」의 설문에서는 전체의 39.1%가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걱정 없다」고 대답했으며, 「자식이 살아 있는 동안은 걱정 없다」는 21.6% 「손자가 살아 있는 동안은 걱정없다」는 8.7%로 비교적 안이한 낙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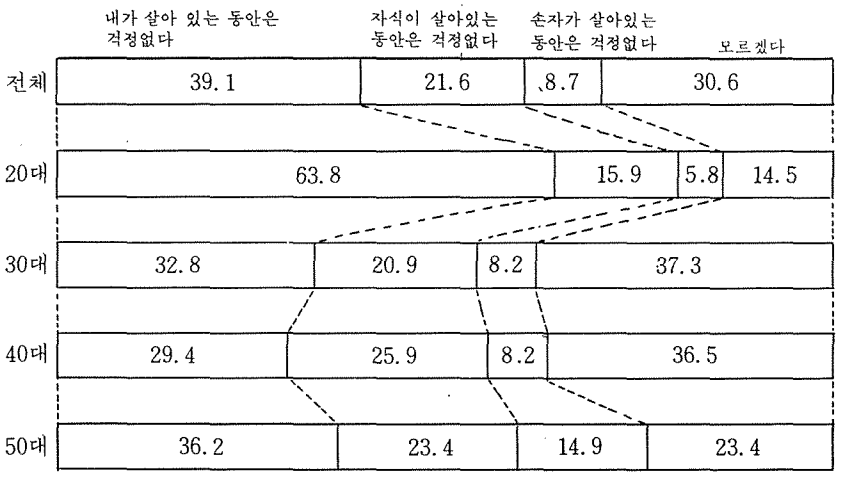
특히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걱정 없다」에서 20代가 가장 많은 것(63.8%)은 당연한 반응으로 볼 수 있으나, 50代가 30代나 40代보다 많은 것은 의외의 사실이다.

주부들의 석유위기에 대한 안이한 낙관성은 다시 그것을 몇 년 후가 될까하는 숫자로서의 표현을 구한 다음의 설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앞으로 언제까지 석유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28.8%가 「50년동안」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에 27.5%가 「30년 동안」이라고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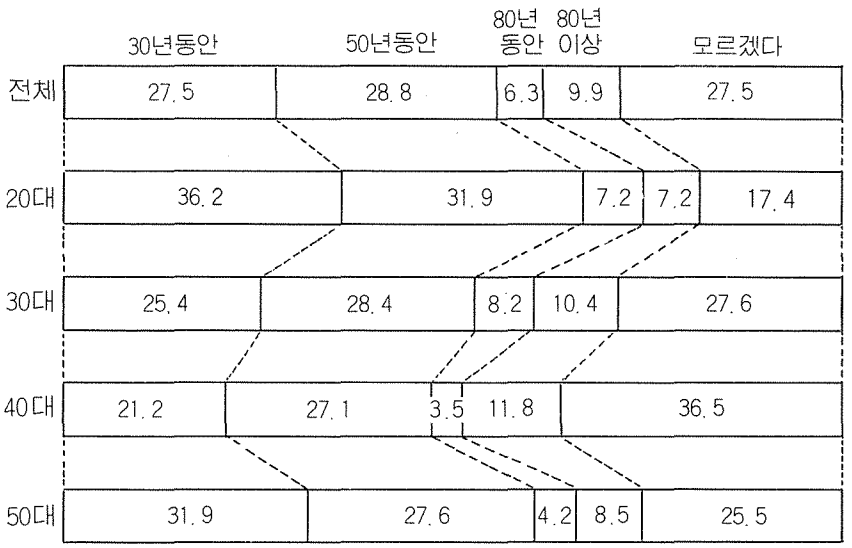
현재 석유의 可採年数 (확인매장량 / 생산량)가 대략 30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통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반응은 정확한 정보나 지식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과 자식, 손자 등의 혈연 관계를 묶어 막연히 예상한 주부들의 현실감각이 아닌가 보여지기도 한다.

따라서 앞으로 석유는 고갈될 것으로 막연히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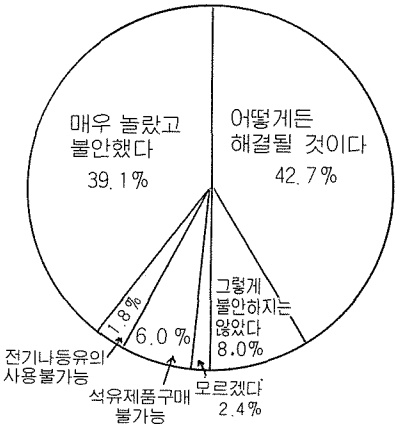
4. 석유는 언제쯤 고갈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5. 앞으로 언제까지 석유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지난 두 차례의 석유위기 당시 어떻게 될것이라고 생각했읍니까.



는 걱정없다는 희망적인 낙관도 은연중에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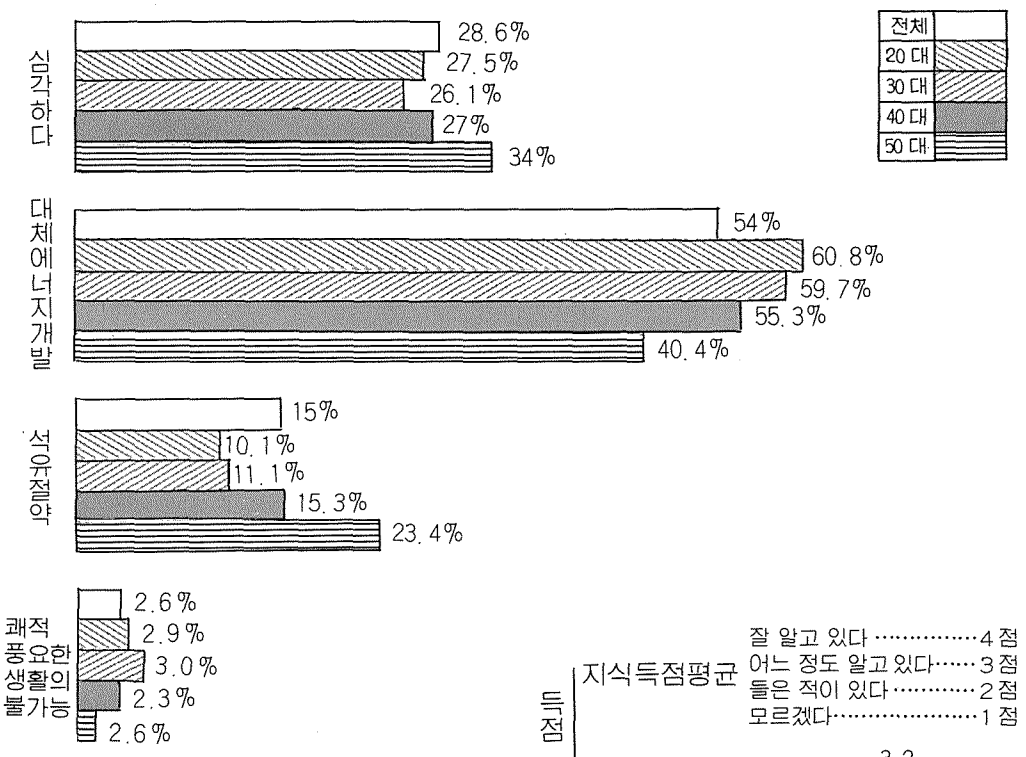
石油危機에 대한 주부들의 낙관적인 입장은 다음 설문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지난 두 차례의 석유위기 당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읍니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든지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다」가 4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매우 놀랐고 어떻게 될 지 불안했다」도 39.1%로 나타났다.

「석유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설문에 대해 「석유에 代替할 에너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가 54%로 가장 높고, 다음에 「심각한 얘기라고 생각한다」도 28.6%였으나 「석유절약으로 조금이라도 오래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불과 15%에 그치고 있어 석유자원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代替에너지 지향은 20代와 30代가 각각 60.8%, 59.7%로 높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代替에너지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절약지향은 50代가 23.4%로 가장 높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절약에 대한 인식이 낮아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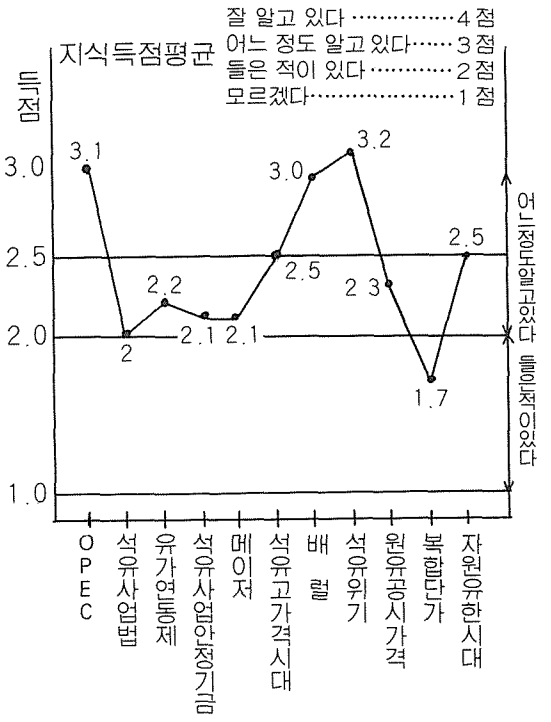
7. 석유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石油에 관한 知識

석유에 관한 지식수준을 알아 보기위해 11개의 石油用語에 대해 질문했는데「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것은 石油危機(48%), 배럴(35%), OPEC(32.5%) 등 신문이나 TV등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대부분이고, 반면에 복합단가, 석유사업법, 油価連動制, 석유 사업안정기금등 다소 전문적이고 생소한 용어에 대한 이해도는 낮았다. 또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메이저란 말도 외래어인 탓인지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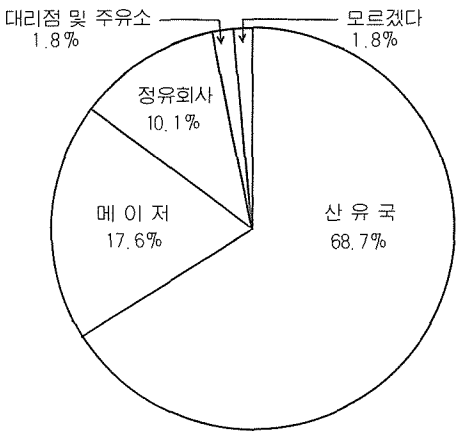
8. 다음의 石油에 관한 말에 어느 정도 관심과 흥미를 갖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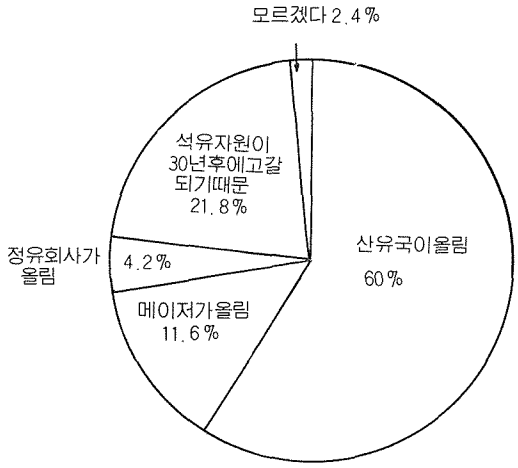
「우리가 내는 석유값은 결국 누구에게 가장 큰 이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는「産油国」이 68.7%로 단연 많고 다음에「메이저」(17.6%),「정유회사」(10.1%)의 順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유회사나 대리점 및 주유소에 가장 큰 이득이 돌아간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11.9%나 되어 석유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오해도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기름값은 왜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産油国이 올리기 때문」이 60%로 가장 많고,「석유자원이 30년후에는 고갈되기 때문」

9. 우리가 내는 석유값은 결국 누구에게 가장 큰 이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10. 기름값은 왜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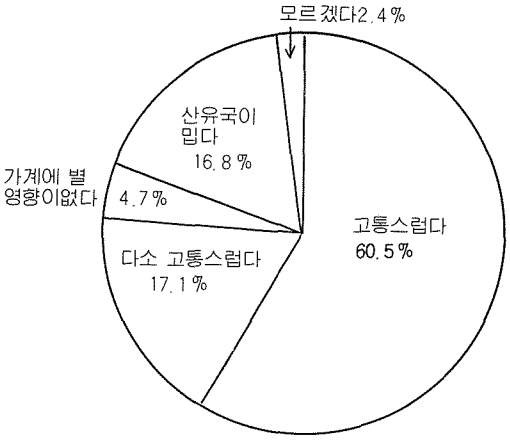


이 21.8%, 「메이저가 올리기 때문」이 11.6%의 順으로 나타났으며, 「정유회사가 올리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4.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름값인상이 정유회사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많았다.

끝으로 「기름값이 자꾸 오르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설문에 대해 「고통스럽다」가 60.5%, 「다소 고통스럽다」가 17.1%로 전체의 77.6%가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었고, 이 외에 「산유국이 밉다」는 16.8%, 가계에 별 영향이 없다」는 4.7%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 나라 가정주부들은 석유문제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판단과 지식을 갖고 있으나 그 深度는 피상적이고 表皮的이며, 石油危機를 보는 視角도 다소 안이하며 낙관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

11. 기름값이 자꾸 오르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탁풍조 배격하여 정의사회 앞당기자